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전략 세미나 결과보고

2010. 12

충남발전연구원

I. 행사개요

- 행사명: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전략(안)
- 일시: 2010. 12. 2(목) 15:00-18:00
- 장소: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
- 인원: 50여명(도청, 16개 시군, 관계전문가)
- 주관: 충남발전연구원
- 후원: 충남도청

II. 개최목적

-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의미 재해석
- 지역산업의 발전가능성과 발전전략 모색
-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중앙부처의 정책동향 및 내용의 파악
-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 모색

III. 행사내용

14:30 - 15:00 등 록

15:00 - 15:20 개회식
개회사 박진도 원장 (충남발전연구원)

15:20 - 16:30 주제발표
발표 1 내생적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개
김태연 교수 (단국대학교)
발표 2 충남 향토자원의 현황 및 발전가능성
황종환 이사장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발표 3 지역산업 지원정책 재편 방안
오은주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6:30 - 16:40 휴식

16:40 - 17:40 종합토론

좌 장 박 경 교수 (목원대학교)

토 론 김동청 교수 (청운대학교)

안기돈 교수 (충남대학교)

윤호익 과장 (충남도청)

이관률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이영철 기자 (아시아경제)

한무호 단장 (충남테크노파크) - 가나다순

IV. 주요발표내용

1) 발표 1(김태연 교수: 내생적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개)

-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는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신내생적 발전론을 주장하였다.
- 김태연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유럽의 농촌지역발전정책으로 제기되었던 신내생적 발전의 특징을 지방분권적 정책 개입, 지역사회의 파트너쉽 형성에 의한 사업추진, 지역사회의 뿌리내림,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설명하였다.
- 김태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신내생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족사업체의 육성, 사업네트워크의 형성, 지역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학습지역의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 발표 2(황종환 이사장: 충남 향토자원의 현황 및 발전가능성)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황종환 이사장은 향토자원을 산업적, 문화적, 복지적, 교육적 측면에서 가지는 가치를 강조한 이후 충남지역 향토자원의 현황과 발전가능성을 설명하였다.
- 황종환 이사장에 의하면, 충남의 향토자원은 총 559건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자연자원은 277건, 인적자원은 43건, 기술자원 51건, 작품자원 72건, 특산물자원 156건이다.
- 이러한 향토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향토자원 지식보유자와 지식수혜자를 연결할 수 있는 지식전문위탁관리기관 및 오픈마켓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향토자원지식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발표 3(오은주 박사: 지역산업 지원정책 재편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은주 박사는 최근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재편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 오은주 박사는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특화산업육성사업을 비교·설명한 이후 현재 정책이 가지는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였다.
- 오은주 박사는 집중성과 과급효과, 그리고 전략성의 세가지 관점에서 지역특화산업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산업도시형, 종합도시형, 농공복합형, 그리고 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전략이 수립·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전문가의 컨설팅체제의 확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V. 주요토론내용

1) 김동청 교수(토론 1)

- 발전패러다임이 외생형, 내생형, 그리고 신내생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생적 지역발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는 관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즉 자발적인 주민참여형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역주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주민의 삶의질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2009년에는 부여에서 알밤관련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에는 공주에서 공주밤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미약하다. 따라서 사업의 통합적·연계적 추진이 요구된다. 한편 지역특화산업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원, 제조설비 공유, 공동유통망 확충, 시장조사 및 마케팅, 광역클러스터화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안기돈 교수(토론 2)

- 지역차원에서 수행되는 사업을 통합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요구된다. 예컨대 금산 인삼산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역에서 통합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 신활력사업, RIS 등 여러 관련사업을 효율저공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협의조정기구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중앙부처의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과정과 지역의 참여주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윤호익 과장(토론 3)

- 기본적으로 선도산업의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은 지역의 연고성이 강한 산업이기는 하지만, 장래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특화산업육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통합적보다는 산업적 통합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패키지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지역산업의 질적평가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성과지향적 지원이 요구된다.
- 끝으로 지역혁신센터사업과 지역전략산업의 통합문제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이관률 박사(토론 4)

- 지역특화산업, 향토산업 등 관련 정책의 개념과 대상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산업은 기본적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식품산업과 관계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특화산업, 향토산업, 지역식품산업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지역산업은 일반적으로 기능적 미분화, 가족형기업, 상품의 시장성 부족, 지역내 전후방연계효과의 미흡, 특허권·상표권의 미확보, 차세대 인력양성 미흡, 연구개발기능 부족, 지역내 비공식조직의 미활성화, 공공주도의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능성 품종개량, 시장수요조사, 특허·상표권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지역내 전후방연계 강화, 교육·훈련지원체제 구축, 주체간 네트워크 확보, 민간참여의 활성화, 그리고 관련정책의 통합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편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정책이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개별 사업간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로드맵의 마련과 관련정책의 통합적 추진전략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산업의 DB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지역산업을 선정하는 메커니즘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현재는 소수의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선정되는 바, 지역차원에서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5) 이영철 기자(토론 5)

- 전 이완구 지사님이 외생적 지역발전을 강조했다면, 금번 안희정 지사님은 내생적 지역발전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 문제는 내생적 지역발전 차원에서 충남도의 발전전략을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은 개별적으로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화산업에서 특화성을 어떻게 강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6) 한무호 단장(토론 6)

- 현재 지역산업정책의 문제는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정권이나 고위정책관료가 바뀔 때마다 지역산업정책이 변화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명확하지 않은 개념에 기반한 정책이 추진되기도 한다. 예컨대 선도산업, 전략산업, 특화산업의 개념은 모호한 실정이다.
- 현재는 지역산업을 위한 추진체계가 수시로 바뀌어 추진조직과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추진체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추진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 그리고 중앙부처의 관련사업간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 혁신주체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유사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성고가 미약할 뿐 아니라 중복사업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관련사업은 단기적이고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사업성과의 창출보다는 실적위주의 사업추진이 일반적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반구축과 기술개발지원, 기업지원서비스 지원, 인력양성, 그리고 지역특화특구지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지역사업 추진체계의 재정비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지식생태계 구축(공간적+산업적+기술적 통합)을 위한 기반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정책의 종합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아울러 포럼사업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것이다.

7) 박용진 담당(참석자)

-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주도하는 리더의 역할, 특히 충남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충남도는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방향제시 및 합의형성, 관련주체와 사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8) 조경호 선생(참석자)

- 최근 내발적 발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중소기업은 영세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또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 한편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해 볼 경우, 지역의 향토산업 혹은 특화산업은 다른 지역과 중복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산업은 시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사회자 마무리 말씀(박경 교수)

- 최근 내생적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술적·정책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 향토산업육성은 지역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충남도에서 향토산업육성에 대해서 같은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충남도가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편 현재 지경부, 농식품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련정책을 통합화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VI. 정책적 건의사항

- 지역산업육성정책과 관련된 유사·중복사업의 추진실태 및 성과 파악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지경부), 향토산업육성사업(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농식품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식품부), 그리고 신활력사업 등으로 추진한 기존의 관련사업 추진실태 및 사업성과 파악
-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제도기반과 문제점 문제
 - 1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 지역산업관련 전문가 Pool 구성 및 정책네트워크 강화
 - 지역산업과 관련된 관련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포럼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 필요
- 충청도 차원에서 지역산업육성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전략의 로드맵 마련
 - 주요 산업별,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역산업육성전략 마스터플랜의 수립 및 전략 과제 도출
- 지역산업육성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 유사한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차원의 통합적 컨트롤 타워 구축
 - 충청도차원에서 지역산업육성정책심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 있음.
- 지역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TBI 기능 지원 강화
 - 지역산업과 관련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지역실업계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과 협력방안 강구
 - 대학연구소 및 중기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TBI기능의 통합적 적용방안 마련

부록 1 - 관련사진





부록 2 - 관련기사

1) 중도일보(2010. 12. 2)

道 향토자원 지식생태계 구축해야

충발연 세미나… 내생적 발전위한 지역산업 육성전략 '벗물'

기사입력 : 2010-12-02 18:35 [최두선 기자]



[대전=중도일보] 전문가들이 충남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산업의 다양한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충발연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단국대 김태연 교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농촌지역발전정책으로 제시됐던 내생적 발전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접목하기 위해선 가족사업체 및 사업네트워크의 육성, 지역정체성 확립, 학습지역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황종환 이사장은 "충남의 향토자원은 자연자원 277건, 인적자원 43건, 기술자원 51건, 작품자원 72건, 특산물자원 156건 등 599건으로 산업·문화·복지·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황 이사장은 "이런 향토자원의 발전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보유자와 지식수혜자를 연결할 수 있는 지식전문위탁관리기관 및 오픈마켓 운영, 향토자원지식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은주 박사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집중성과 파급효과, 전략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며 "산업도시형, 종합도시형, 농공복합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해 전략을 차별화하고,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문가 컨설팅체제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목원대 박경 교수의 진행으로 청문대 김동청 교수, 충남대 안기돈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학술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도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충발연 이관률 박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선 시장성과 산업적 파급성에 기반한 산업 선정이 중요하다"며 "지역산업과 농업클러스터의 접목, 지역산업육성조례 제정, 지역산업의 기업화지원체제 구축,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2) 대한매일신문(2010. 12. 3)

지역산업 키워 내생발전 꾀한다

충남발전연구원, 각계 전문가등 50여명 참석 세미나

2010년 12월 03일 (금)

대한매일신문 ☞ daehanmail@naver.com

손봉환 기자 / 최근 중앙정부가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발전연구원은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충남연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전략’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는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농촌지역발전정책으로 제기되었던 신내생적 발전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가족사업체 및 사업네트워크의 육성, 지역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학습지역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황종환 이사장은 “충남의 향토자원은 총 599건으로, 이중 자연자원은 277건, 인적자원은 43건, 기술자원 51건, 작품자원 72건, 특산물자원 156건 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산업·문화·복지·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향토자원의 발전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보유자와 지식수혜자를 연결할 수 있는 지식전문위탁관리기관 및 오픈마켓 운영, 그리고 향토자원지식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은주 박사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집중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전략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특화산업을 산업도시형, 종합도시형, 농공복합형, 그리고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해 전략의 차별화와 더불어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전문가 컨설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성과 산업적 파급성에 기반한 지역산업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산업과 농업클러스터의 접목, 지역산업육성조례 제정, 지역산업의 기업화지원체제 구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3) 조은뉴스(2010. 12. 3)

충남발전연구원,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전략' 세미나 개최

2010년 12월 03일 (금) 09:34:53

충라인뉴스팀

[(충남)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최근 중앙정부가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발전연구원은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충남연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전략"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는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농촌지역발전정책으로 제기되었던 신내생적 발전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사업체 및 사업네트워크의 육성, 지역경제체의 확립, 그리고 학습지역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황중환 이사장은 "충남의 향토자원은 총 599건으로, 이중 자연자원은 277건, 인적자원은 43건, 기술자원 51건, 작물자원 72건, 특산물자원 156건 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산업·문화·복지·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향토자원의 발전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보유자와 지식수혜자를 연결할 수 있는 지식전문위탁관리기관 및 오픈마켓 운영, 그리고 향토자원지식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은주 박사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집중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전략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특화산업을 산업도시형, 종합도시형, 농공복합형, 그리고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의 차별화와 더불어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전문가 컨설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는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의 진행으로 청운대학교 김동철 교수, 충남대학교 안기춘 교수, 충남도청 윤호익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이관홍 박사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성과 산업적 파급성에 기반한 지역산업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산업과 농업클러스터의 정복, 지역산업육성조례 제정, 지역산업의 기업화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4) 뉴스와이어(2010. 12. 2)

충남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내생적 발전 토대 구축 필요

뉴스와이어 | 입력 2010.12.02 10:18

(공주=뉴스와이어) 최근 중앙정부가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발전연구원은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출발연 박진도 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출발연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 전략'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는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농촌지역발전정책으로 제기되었던 신내생적 발전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가족사업체 및 사업네트워크의 육성, 지역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학습지역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황종환 이사장은 "충남의 향토자원은 총 599건으로, 이중 자연자원은 277건, 인적자원은 43건, 기술자원 51건, 작품자원 72건, 특산물자원 156건 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산업·문화·복지·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향토자원의 발전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보유자와 지식수혜자를 연결할 수 있는 지식전문위탁관리기관 및 **오픈마켓** 운영, 그리고 향토자원지식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은주 박사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집중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전략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특화산업을 산업도시형, 종합도시형, 농공복합형, 그리고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의 차별화와 더불어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전문가 컨설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의 진행으로 청운대학교 김동철 교수, 충남대학교 안기돈 교수, **충남도청** 윤호익 과장, 충남테크노파크 한무호 지역산업평가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성과 산업적 파급성에 기반한 지역산업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산업과 농업클러스터의 접목, 지역산업육성조례 제정, 지역산업의 기업화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충발연,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전략' 세미나 개최

2010년 12월 02일 (목) 17:08:53

충남/김기룡기자 ☎ dragon48@naver.com

최근 중앙정부가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발전연구원은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충발연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는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농촌지역발전정책으로 제기되었던 신내생적 발전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가족사업체 및 사업네트워크의 육성, 지역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학습지역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황종환 이사장은 "충남의 향토자원은 총 599건으로, 이중 자연자원은 277건, 인적자원은 43건, 기술자원 51건, 작품자원 72건, 특산물자원 156건 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산업·문화·복지·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이러한 향토자원의 발전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보유자와 지식수혜자를 연결할 수 있는 지식전문위탁관리기관 및 오픈마켓 운영, 그리고 향토자원지식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은주 박사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집중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전략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특화산업을 산업도시형, 종합도시형, 농공복합형, 그리고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해 전략의 차별화와 더불어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전문가 컨설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의 진행으로 청운대학교 김동청 교수, 충남대학교 안기돈 교수, 충남도청 윤호익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도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성과 산업적 파급성에 기반한 지역산업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지역산업과 농업클러스터의 접목, 지역산업육성조례 제정, 지역산업의 기업화지원체제 구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관건"이라고 역설했다.